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베드로의 진심의 한계

(마 26:31-35)

The Limit of Peter's Truth

(Matt. 26:31-35)

본문은 '그 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 때는 최후의 만찬이 막 끝나고 난 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날 밤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31절).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예수님을 신뢰하고 헌신했는데 그 밤에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제자들은 도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33절).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대로 닭 울기 전에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당시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였을 것입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text begins with the word, 'then'. It means that it was just the time after the Last Supper finished. Jesus said that His disciples would fall away and be scattered at that night (v. 31).

For the last three years, when they heard Jesus said that His disciples who gave up their trusted Jesus and showed dedication would betray Him, they did not know how to accept it.

Peter assured that even if all fell away on account of you, he would never (v. 33). Eventually though Peter disowned Jesus three times before the rooster crowed, at that time Peter's answers might be right.

1. Must not think highly of yourself in the life of faith

Such a fact of extreme assurance and oath begins from his arrogance (v. 35.) Because Peter's self-confidence was too much, it

1. 신앙생활은 자만하면 안 된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극단적인 장담과 맹세는 사실 그의 교만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35절). 베드로의 자신감은 지나쳐 교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잠 16:18). 신앙생활에 장담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내 방법, 내 생각은 항상 옳다는 태도는 언제나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교만인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2. 주님의 말씀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수님은 스가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에 새로운 정부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지면 자기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에 골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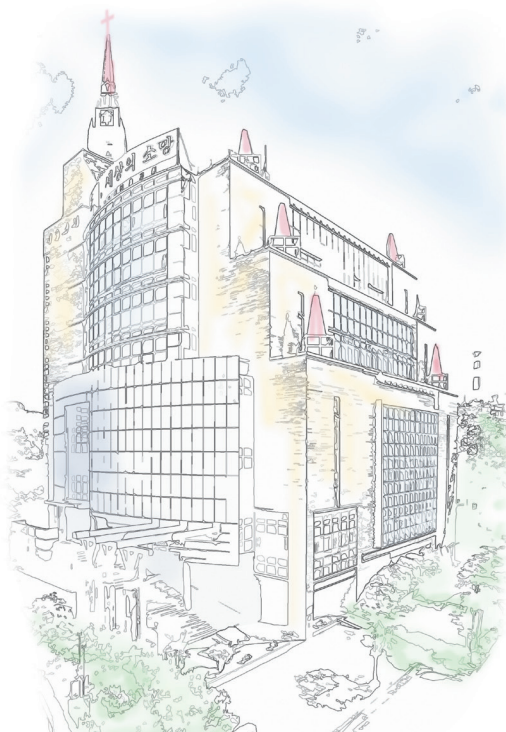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당장은 잘 이해되지 않아도 절대 진리인 줄 알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3.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이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울던 그 찰나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길은 결코 섭섭하거나 분노에 찬 그런 눈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애정 어린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큰 죄책감과 좌절에 빠져 사도직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초대교회의 복음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진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책망도 받고 도전도 받으며 회개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made him arrogant. It is said that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Prov. 16:18). There is no assurance in the life of faith. We must be always able to look back on ourselves in a modest way. You must not forget the attitude of a person who do not make a mistake, whose method and thought are always right makes him collapse and arrogant. Therefore, you must always rely on Jesus Christ with a modest mind.

2. Pay attention to the word of Jesus Christ

By quoting a word from the prophet Zechariah, Jesus said that His disciples disowned Jesus, He would die, and would rise again the third day. But Jesus' disciples did not listen carefully to Him. If the government of Israel would be established by Jesus as the center, they only thought and were absorbed in which position would be suitable for them, and they did not try to pay attention to the meaning of Jesus words. What Jesus had said was accomplished though.

Jesus knows much more than we know ourselves. Even though we do not understand Jesus word right now, we must know it is an absolute truth and obey God with our modest mind.

3. The reason why we can stand is only Jesus love and compassion

Jesus was looking at Peter at the right time he denied Jesus three times before a rooster crowed. But Jesus' eyes did not show any disappointed and angry eyes. He rather looked at Peter with affectionate eyes being full of compassion and impatience. After that, although Peter was trying to give up the discipleship by feeling a big guilty and frustration, Jesus did not give up him and made him fulfill the work of the Gospel.

My beloved Christians,

We are all who sincerely serve our church with our hearted faith. But whoever makes a mistake at any time. Therefore, you should know how to confess, by comforting, reproaching, and challenging by Jesus word. And then, by falling but by getting up again,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glory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5년 인도 비전트립팀 파송식

오늘 찬양예배 시
8월1일(토)~8일(토) / 인도 벵갈로 지역에서

2015 인도 비전트립팀(단장 : 박종권 집사)이 오
이들의 사역과 건강, 입국절차 및 모든 과정에서
늘 찬양예배 시 파송식을 마치고 8월 1일(토) 선교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길 성도들께 기도 부탁
역지 인도로 출국 할 예정이다. 드린다.

비전트립 기도제목

1. 힌두교(83%), 이슬람(11%), 기독교(4%), 제인교(0.78%), 불교(0.73%)인 인도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2. 인도 기독교인(4%, 개신교 2%)들의 믿음이 더욱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3. 우상식, 김정옥 선교사님의 가정과 나가나할리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4. 나가나할리 지역의 제 1 아가페 센터(유치원, 공부방) 사역과 현재 공사 중인 치그라푸라 지역의 제 2 아가페 센터(학교, 교회) 건립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5. 비자수속과 통관절차가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6.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고, 이교도들의 방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7. 팀원 모두가 풍토병 등 질병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기후와 숙식에 잘 적응하게 하시며, 항공기와 현지 교통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8. 팀원 각자가 맡겨진 사역을 성실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팀워크 이루게 하옵소서.
9. 무엇보다도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잘 받들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인도 비전트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

고등부 : 7월 30일(목)~8월 1일(토) / 아가페타운
청년·2부 : 7월 28일(화)~7월 31일(금) / 경기도 광주
에바다부 : 7월 30일(목)~8월 1일(토) / 아가페타운

| 부서 | 일시 | 장소 | 주제 | 강사 |
|------|------------------|---------------|---------------------------|--|
| 고등부 | 7/30(목) - 8/1(토) | 아가페타운 | 주님을 바라며 뜻을 정하다 (단 1 : 8) | 박노철 목사 천세중 목사 |
| 청년1부 | 7/28(화) - 31(금) | 경기도 광주 | 섬기는 기쁨, 누리는 은혜 (행 9 : 31) | 박노철 목사 서준권 목사 장재원 전도사 정대은 전도사 |
| 청년2부 | | | | |
| 에바다부 | 7/30(목) - 8/1(토) | 아가페타운 서울교회 |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 : 3-12) | 박노철 목사 임규현 목사 |

2015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

오리엔테이션: 8월 2일(주일) 오후 4시, 본당
장학금 수여식: 8월 2일(주일) - 찬양예배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안인호 장로)는 2015년 하반기 장학금을 선발하고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오후 4시에 있을 오리엔테이션에 대상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때에 장학금을 받을 본인명의로 통장 계좌번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장학금 수여식에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 46명으로 본인의 믿음이 신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회봉사에 모범적인 학생들이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 자라나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끄는 기동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브리스길라 이종훈 (1명)

송암장학생(대학부)

김영기 장지윤 안세인 김성경 이다현 김수연 이성화 임주빈 김기남 김준서 김현지 최희연 조영제 오완근 박서정 배상은 최의진 (17명)

고등부

장소영 전준수 황수지 정예빈 박소희 이우진 (6명)

디아스포라부

최아라 홍지아 김혜경 김수진 정윤희 조영금 엄에밀리 (7명)

교역자 선교사 직원 자녀

서윤영 김지혜 황성진 우하은 김예림 이준행 김예나 정에스터 이지행 조라혜 김노수 이재준 (12명)

호산나장애인전문대학 류근휘 성동제 김신타 (3명)

총 : 46명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78)

(문 178) 바울의 에베소 전도 기간은 2년인가 아니면 3년인가요?

(답) 사도행전 19:10에 의하면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0:31에 의하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설교를 하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사도행전 19장을 좀 더 자세히 읽게 되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강론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가 그곳에 자리를 잡기 전 그는 상당기간 동안 이미 복음을 전한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1-6에는 그곳에 이미 세례요한을 통한 신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세례를 가르치고 안수하며 저들이 성령세례를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6절에서는 그들의 수가 모두 12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아직 그 지역 회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8:19-21에도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 변론한 기사가 있고 얼마나 오랜 기간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20절) 한 것을 보면 상당 기간 에베소에 이미 머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에서 바울은 처음엔 아주 작은 그룹 즉 12명 때로는 2명에게 전도를 하다가 나중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기 전 좋은 인상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회당에서도 3개월 씩이나(행19:8)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회당에서 계속적으로 전도할 수 없게 되자 그는 두란노 서원을 세를 내어 사용케 된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2년을 더 전도할 수가 있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19-21에 보여진 바울의 에베소 방문과 19:1-7에 나타난 요한의 제자들에게 성령세례를 전한 기간 그리고 회당에서 3개월을 포함하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전한 2년까지 합쳐 거의 3년이라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0:31과 19:10 사이엔 아무런 마찰이 없으며 두란노에서 2년간 강론한 것은 에베소에서의 전체 전도 기간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 주 계속)

2015 인도비전트립을 떠나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서준권 목사
(비전트립 지도)

5월부터 기도하며, 준비한 인도비전트립 팀이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힘입고, 8월 1일(토) 인도를 향하여 출발합니다.

8월 2일(주)은 우상식·김정옥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나가

나할리 교회에서 현지 어린이와 성도들과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의료사역을 진행하며, 저녁에는 현지 어린이들의 율동과 우리 팀이 준비해 간 찬양, 위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8월 3일(월)에는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나가나할리 유치원 사역을 진행하고, 의료사역과 어린이 성경학교 사역 그리고 교회 외벽 벽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8월 4일(화)과 5일(수)에는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시고, 현재는 현지인 목사님께서 담당하시면서, 선교사님과 계속 협력하고 계시는 단네교회와 니모쳐나교회에서 어린이 성경학교와 의료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8월 6일(목)에는 우리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세워지고 있는 아가페센터(교회와 기독교학

교)가 있는 치그라푸라 지역으로 이동하여, 의료사역과 노동사역 그리고 선교사님과 현지인들과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한 선교팀의 문화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7일(금)에는 선교사님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선교사님과 인도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선교사님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의 우리의 사역과 섬김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인도 땅에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허락하신 사역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선교 기간 중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팀원들이 풍토병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7박 8일의 짧은 여정이지만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도비전트립 기간 동안 8월 3일(월)부터 6일(목)까지 저녁 8시에 603호에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인도비전트립팀의 사역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봉배 집사
(의료 팀장)

신비의 나라 인도를 향한 영혼 구원의 비전트립을 떠납니다. 힌두교의 지배로 선교활동이 자유롭지 않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리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영혼구원의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착하고 순박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출발합니다.

이번 비전트립은 약품이나 물품, 지식만을 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골 3:23)는 주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빛진 자 되어 나보다 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과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의 사역이나 우리들의 작은 섬김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장차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일을 본받아 미력하나마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아프고 지친 환자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시어 그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치료하는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비전트립 동안 모든 일정이 하나님 뜻대로 행통하게 진행되고 오고가는 중에 풍토병이나 안전사고, 어떠한 위험에도 처하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① ② ⑤ 우상식 선교사님께서 보내 주신 인도 현지 어린이들과 빈민 여성들, ⑧ ⑨ 현재 건축 중인 아가페 센터 현재 상황
③ 기도로 준비 중인 비전트립팀원들, ④ ⑦ 어린이 사역 준비 ⑥ 예방 접종을 받으며 비전트립 만반의 준비 끝!



에바다부 여름수련회 초대

복음으로 사는 사람



강낙훈 집사 (에바다부 부장)

하나님께서서는 만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간절한 저희들이 교회 뜰을 밟기도 어려운 일인데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농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비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가 된 에바다부 성도들이 7월30일(목)부터 8월1일(토)까지 2박3일간 아가페타운에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2015년 여름수련회를 갖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에바다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이 복음의 영향력으로 더 많은 농인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에바다부 임규현목사님과 저희 교사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특별히 '부천 153농인교회'와 연합하여 더 많은 은혜를 함께 누리는 축복된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서로 같은 장애를 가지고, 또 같은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경험을 가진 두 교회 성도들이 연합수련회를 통하여 더 많은 위로와 격려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아름다운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수련회를 만들어 더욱 복음과 은혜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



습니다.

늘 에바다부를 위하여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울교회 각 기관과 성도님들께 드리는 저희들의 감사가 복음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모습으로 서울교회의 아름다운 목표에 빛을 더하는 에바다부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2015 사랑의 바자 기부천사운동으로 시작!

9월 17일(목)~18일(금) 서울교회 앞마당

이웃과 함께하는 2015 사랑의 바자(위원장:홍성주 장로)가 9월 17일(목)~18일(금) 양일간 서울교회 앞마당과 1층에서 9층에 걸쳐 열린다.

사랑의 바자는 1) 불우이웃과 탈북난민 돕기 2) 생명의 우물파기(동남아 및 아프리카) 3) 농어촌 교회 및 해외 선교 지원을 목표로 한다. 바자보다 먼저 시작되는 사랑나눔A+캠페인이 기부천사운동을 중심으로 8,9월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예정이다. 기부천사운동은 8월 첫 주부터 당회원들의 기부릴레이로 시작하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기부천사의 명단을 순례자에 게재한다. 기증은 무유형 상품 모두 가능하며 교구간사를 통하여 접수하기 바란다.(202호)

1) 기증품: 신상품 및 재활용품 (화장품 식품 잡화 의류 및 소형가전 생활용품 폴더폰 중고스마트폰 외국 동전 우표 기념메달 성경책)

2) 재능기부

- 미술 : 작품기증(회화, 붓글씨, 조각,공예) 경매로 판매 (1층)
- 음악 : 작은 음악회(1, 8층)
- 의료, 이·미용 : 동네 어르신 의료, 이·미용 봉사

3) 성도운영 사업장 상품기부

- 음식점 커피숍, 미용실, 학원, 펜션 등 서비스상품 포함
- 예 : 식음료권, 파마 이용권, 학원 수강권, 펜션이용권 등 성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로 2015 사랑의 바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

- 2015 사랑의 바자 섬김위원회 명단 -

- 위원장: 홍성주 장로 · 지도: 황 광 목사
- 차 장 : 예완식
- 기획부 : 주동재 / 정완진 송인수 백승갑 김광민 이현미
- 판매관리부 : 이종창 / 정창빈 김종철 안성현 정진문 유근종 김광래 이선호 김미성 박 옥 김수원 각 교구간사
- 재정부 : 김영희 / 안분선 이안순 이경란 정경자
- 홍보부 : 서준식 / 허 숙 유은경 손동혁 정승균 최영철 윤요섭 이준태 정치는
- 섭외부 : 양지훈 / 박정수 홍성모 오세복
- 특판부 : 유혁근 / 오명걸 서병권 홍성모 조용기 민병환
- 지원부 : 교회학교 - 김광태 / 이준호 윤종덕 윤동수 김장섭
- 시설관리부 : 홍일성 / 장창수 오교식 박종구 임선철 최낙준 박종권 김상태 이민호
- 식당관리부 : 이길재 / 최관목 정기자
- 차량관리부 : 차도훈 / 차량관리부 전원

등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8월1일(토) 사랑의 쌀운동 조찬기도회, 몽골 IUB대학교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 전시회: 김명옥 권사(4교구) 개인전, 한남동 드플로러 갤러리(용산구 대사관로 5길 34), 6호선 이태원역 2번 출구 제일기획 방향, 7월29일(수)~8월18일(화)

■ 주일식당봉사 : 루디아 전도회(7.26) 도르가 전도회(8. 2)

■ 금주의 식사 제공 : 양지훈 집사 최성희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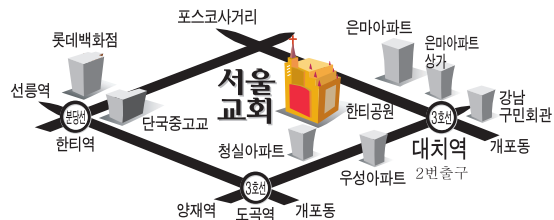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전도수련회와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고등부와 에바다부 여름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2. 토요일 출발하는 인도 비전트립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3. 다락방 방학 기간 중에 모든 성도들이 영적 재충전에 힘쓸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주 일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9시 |
| |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 오전 11시 20분 |
| | III 부 예 배 | 오후 2시 |
| | 찬 양 예 배 | 오후 5시 |
| 수 요 예 배 | English Worship | 오전 11시 15분 |
| | 젊은이 예 배 | 오후 1시 30분 |
| | I 부 예 배 | 오전 11시 |
| 새 벽 예 배 | II 부 예 배 | 오후 7시 |
| | 새 벽 예 배 | 오전 5시 30분(매일) |
| 금 요 기 도 회 | 오후 8시 | 본 당 II 층 |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